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張 南 原**

— 차 례 —

- I. 머리말
- II. ‘강진유형’ 공유의 수공업적 배경
- III. 가마터 출토품을 통해 본 강진유형 청자의 조형적 특징
- IV. 출토 양상으로 본 강진유형의 청자의 확산
- V. 맺음말

I. 머 리 말

공예품 가운데 가장 보편적 소재인 도자기는 한 시대의 기술력과 그것을 가능케 한 경제적, 제도적 배경, 사용 계층의 범위와 취향, 음식문화 등 총체적 생활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는 특수한 목적과 조형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예의 대부분은 機能과 效用을 토대로 한 실용을 전제로 하며 그 위에 조형미가 놓인다. 제작 주체가 ‘官’이든 ‘民’이든 분업적 협업 생산이 요업의 일반적 형태이며, 재료와 제작 방법 등에서 개연성을 지닌다. 따라서 도자기는 제작부터 사용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분야의 미술품에 비해 보다 公的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

* 본고는 제44회 전국 역사학대회 발표 내용을 개고한 것이다. 당시에는 역사학대회의 공동 주제였던 ‘역사에서의 공공성과 국가’라는 대전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발표제목은 「고려시기 도자의 공공성에 대한 시고」였다.(발표요지 pp. 373~380.) 그러나 본 고에서는 주제의 논지는 그대로 두고 강진유형 청자에 시각을 좀 더 집중시켜 보았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덕성여대·이화여대 강사

1) 공공성 개념에 대한 역사적 적용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비롯되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주지하듯 ‘공공성’은 서구에서 발달된 다분히 정치·사회적 개념으로서 각 시대에 따른 ‘공공’의 주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스 시대에는 민주적 승意에 의한 여론의 중심인 ‘자유민’이 주체라면, 중세에는 사회와 정치를 좌

청자발생 초기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요업은 일정시기부터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양상이 바뀌고 서남해안 가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博築窯에서 소규모 土築窯로 바뀌는 현상을 보여준다.²⁾ 또한 생산품인 청자도 龍仁 西里나 始興 芳山洞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해무리굽 완이 각각 전체의 약 52%³⁾, 54%⁴⁾를 차지하던 것에서, 강진지역에서와 같이 多種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어서 청자의 사용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초기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들 가운데 이후 시기 강진과 공유하는 형식의 청자를 생산하는 가마는 용인서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드물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과, 가마축조기술, 그리고 안에서 생산되는 청자간에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강진가마터에서 보이는 일정유형의 청자—蓮瓣文, 鸚鵡文, 壓出陽角文 장식 청자 鉢類와 折腰접시, 筒形蓋, 팽이형잔 등—를 생산하던 가마들은 앞의 초기 청자가마들과 구별되는 토축요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것으로서 강진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새롭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청자는 해무리굽 청자 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청자 발생문제와 제작기술 및 가마축조 차이에 따른 요업계보 연구, 또 고려후기 干支名 청자연구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청자의 생산과 사용 유형을 연관지어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

공예에서의 공공성이란 일정 수준을 가진 지속적인 기술과 그것을 토대로 하는 표현의 진수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고려 전기의 어떠한 요인이 그와 같은 자기생산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한 양식을 전국의 가마들이 공유하게 되고 또 그것을 생활용으로, 부장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고는 고려 초기⁵⁾나 후기, 나아가 분원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했던 조선시대와 달

우하던 카톨릭 교회와 귀족계층이 주체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로 접어들면서 합의된 여론의 주도 층은 일반시민, 엘리트 계층으로 확대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우리나라, 그것도 고려시대의 청자 생산 양상을 공공성이라는 개념에 접목시키고자 시도하며 처음에는 무리라고 예상했으나 '공예'의 특수성이, 그리고 생산과 공급과정에 모종의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기까지 서양사학에서의 입장과 그 밖의 역사학에서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제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광주 선생님의 큰 도움을 받았다.

2) 崔 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홍익미술사연구회, 1999), pp. 3~19.

3) 호암미술관, 『龍仁西里白磁가마터 發掘調査報告書』(1987), p. 54.

4) 海剛陶磁美術館·大田光城市, 『大田舊完洞窯址-이청골 靑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2001), p. 75 주13) 참조

5) 물론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요장이 발달하던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해무리굽 청자완류—청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동반기종들도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이 시기 역시 국가 또는 동일 세력이 생산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한 그간의 집중적인 관심에 비해 이들 생산품의 소비지와 사용양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단언하기가 어렵다. 이들 초기청자의 경우는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동시다발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후 시기 강진에서

리 이처럼 고려의 일정 기간동안 생산형태나 사용계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양식 청자의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려의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수공업, 특히 자기소 및 군현내의 자기생산지에서 운영과 공납제도 등의 안정과 원활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가능했으리라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⁶⁾

II. ‘강진유형’ 공유의 수공업적 배경

고려시기 강진이 청자생산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과 강진유형 청자가 부안을 비롯한 이외 지역에 기술적·조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청자생산 초기에는 강진이 청자중심이 아니었으며 한반도의 중서부 지방에 많은 청자 가마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나, 결국은 강진이 청자의 중심이 되는 것과 이 과정에서 청자의 생산체계에는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점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다.⁷⁾ 그러나 그 과정과 실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영향관계, 제도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고려시대 수공업 연구는 所를 중심으로 고려 후기의 민간수공업에 주목하는 편이며, 고려 전기 수공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룬 예가 거의 없고, 더욱이 청자와 연관지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요지의 환경과 규모에 있어 이른 시기 중부지방 博築窯가 강의 하구나 해안을 낀 넓은 평야지대 주변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다는 점에 비해 土築의 청자가마들은 비교적 협소한 계곡의 산비탈에 소규모로 형성되어 밀집된 형태로 요업이 이루어진다.⁸⁾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가마 자체 뿐만 아니라 생산품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고려에서는 일부 수공업 제품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수 행정구역인 所를 설치하고 공납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275개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 초의 기록을 통해 그 지명 등이 알려져 있는 바 고려시대의 그것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는 있다.

도자소는 기존에 밝혀진 康津郡의 大口所와 七良所등 두 곳 외에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와 반암리의 청자요지가 있다.

보여주는 ‘중심적’ 양식의 집중생산과는 차이가 있다.

6) 물론 이러한 시각은 고려시대 도자를 청자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도기의 생산과 수급체계나 그것이 고려의 도기와 청자생산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아직은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7)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미술사연구회, 1998), pp. 3~20 ; 최건·이희관, 「고려초기 청자생산체제의 변동과 그 배경」,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 요지(1999년 9월).

8) 본 고, 주7) 참고.

공물생산에 종사하는 소의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서 당연히 농업 생산에 대한 田租를 부담하면서 지방차원의 각종 요역 징발에 동원되는 한편⁹⁾, 자신들에게 부과된 身役으로서 공물생산 노동에도 종사해야 했으므로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전문 공장들도 생계를 수공업에만 의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부분은 농업을 겸영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즉, 소의 주민은 일반 주민이나 공장을 막론하고 생업 외에 별도로 貢役에 나아가야 한다. 소는 특히 전문적으로 특정 공물을 생산하도록 설정된 곳이었던 만큼 그 공물의 액수 자체가 과다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 공역 자체가 身役으로 주어진 것인 만큼, 빈번하게 부과되는 別貢을 위해서도 매번 지속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소민들은 농민이기 보다 마치 모두가 장인이었던 것처럼 인식될 정도였다.¹⁰⁾

이미 10세기를 전후하여 수공업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고려 태조이래 光宗(949~975), 成宗(981~997)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과 각지역에 대한 籍의 작성이 이루어지며 工匠案의 작성을 통해 수공업자들에 대한 신분적, 기술적 수취를 강화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은 공장의 제도화와 관영수공업의 성립의 기초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 같은 배경 아래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요지에서는 순화3년(992)명 청자가 출토되면서 명문의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을 통해 ‘享器匠’의 존재가 드러났고, 所는 아니었으나 해무리굽 청자를 제작했던 全南 高興郡 두원면 雲垆里(高伊部曲)¹¹⁾나,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聖淵部曲으로 추정)¹²⁾,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서리(處仁部曲)등지에서의 도자기 생산은 이미 고려 초기부터 所이외 지역에서 상당량의 생산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서남해안의 요장들 역시 일정한 유형 즉, 해무리굽완을 대표로 하는 일련의 동반유물을 생산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고려 초부터 도자생산이 커다란 국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결국, 초기에는 동시다발적인 생산이었을 것이지만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도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심적 ‘官窯’의 설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기 발생 초기에 중국식 청자와 백자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은 중국자기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에 대한 고려 지배층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에 의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¹³⁾ 실제로 시흥의 방산동

9) 李貞熙, 「고려시대요역제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10) 서성호,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7), 3장 2절 3항.

11) 『고흥운대리-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도요지 조사보고(Ⅲ)』(국립광주박물관, 1991), pp. 75~77.

12) 서산문화원·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서산·태안 문화유적(상)』, p. 278.

13) 尹龍二, 『韓國陶瓷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p. 14~15.

요지 등에서는 이전의 도기를 구웠던 요지와는 거의 연결관계가 없이 청자 요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⁴⁾ 聖住寺址 발굴에서도 초기의 중국산 도자기 사용부터 한국산 도자기 사용과정 이 드러난 바 있다.¹⁵⁾

博築窯式 중국식 청자 유형에서 土築窯式 한국식 청자유형으로 제작의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유적으로는 龍仁西里 백자요지가 있다. 서리 요지에서는 처음 출토품의 52%를 차지하던 것에서 한국식 청자유형으로 넘어가면서 대접, 접시류와 같은 일상생활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기종도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¹⁶⁾ 더욱이 서리 퇴적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이들 유형을 강진 용운리 10호와 비교하면 下層유형과 거의 일치하지만 거칠고 종류도 단순하여 강진이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중부지방의 초기 청자가마들이 쇠퇴해 가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銅, 鐵, 磁器, 먹 등의 雜所는 별공물색의 정구가 지나쳐 장인들이 견디다 못해 도피하니, 담당 관청은 각소의 별공과 상공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정하여 아뢰어 처분을 받도록 하라.”¹⁷⁾ 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1108년경의 자기소에서는 常貢과 別貢을 실시하는 등 생산량과 종류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소수의 州縣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屬縣까지 통치하는 고려의 지방 지배는¹⁸⁾ 단지 수취문제 뿐아니라 수공업품, 특히 자기 생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성종대의 군현제 개혁(성종14, 995)과 현종9년(1017)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지방제도 재편은 수공업 소와 기타 부곡 등에서의 청자생산 체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1124년 전라도에 장흥부가 승격되고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으로 이속된 사실과 1172년 강진 지역에 처음으로 監務가 파견되었던 점 등은 강진청자 제작의 활성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12세기 초반부터 그간의 지방관과 향리들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에 대항하는 농민항쟁이 잇달아 향리층 주도의 향촌질서에 해체를 가져왔고, 睿宗 원년(1106)부터 감무를 파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향촌통제를 의미하지만 뒤집어 보면 지방사회의 성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¹⁹⁾

14) 拙稿,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p. 179.

15)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1998), pp. 457~568.

16) 李鍾宣·金載悅·朴淳發, 『龍仁西里窯의 窯業變遷에 關한 試考-計量的 屬性 分析을 통해 본 窯業形態 變遷의 研究』,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Ⅱ(1987, 일지사), pp. 271~273.

17) 『高麗史』卷78, 食貨1, 貢賦, 睿宗 3年 2月.

18) 박종진, 『고려시대 '수취단위'의 의미와 속현의 지위』, 『역사와 현실』 32(1999), pp. 161~182.

19) 채웅석, 『고려사회의 변화와 고려중기론』, 『역사와 현실』 32(1999), pp. 123~159.

더욱이 고려전기 청자를 생산한 가마들 가운데 소나 향, 부곡의 유무를 살펴보면 41개 생산지 가운데 향, 부곡, 소 등이 없었던 생산지가 31개소로 있는 곳의 3배에 달한다.²⁰⁾ 즉 자기를 생산한 곳들 중에 실제로 일반 군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수요 외에도 귀족층이나 郡縣의 관리, 부유계층 등에서도 청자를 썼던 것으로 추정한다면 所이외 지역에서의 청자생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었다.

Ⅲ. 가마터 출토품을 통해 본 강진유형 청자의 조형적 특징

앞서 살펴 본 바대로 고려의 수공업 생산은 '所'라고 불리는 수공업품 제작지를 중심으로 왕실이나 관급품을 조달하였다. 그 가운데 所에는 貢納用 물품과 수량이 일정하게 책정하여 매년 부과하는 常貢의 책임과 별도로 국가의 수요가 있을 때 別貢의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 수량과 器種, 器形과 文樣 등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했다. 그러나 자기소는 일반 州郡과 마찬가지로 主管所司의 명령체계 아래서 州縣 지방관의 통제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취를 집행한 것은 所吏였을 것으로 보며 所吏의 감독 아래 所民을 동원한 생산과 납부의 공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대표적인 예가 康津지역의 大口所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가마터 가운데는 오히려 所로 지정되지 않았던 가마들에서의 생산이 많았음은 확인된 바와 같다.

최근 강진과 부안의 생산체제를 추론한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강진과 쌍벽을 이루던 부안의 柳川리나 진서리 등지의 대규모 청자 생산도 磁器所 체제에 편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沙堂里·용운리·계율리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강진 청자 가운데서 官急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이 주로 발견되는 것에 반해 유천리에서는 다양한 (승려로 추정되는) 匠人의 이름이 나타나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강진과 유사한 유형의 청자를 생산하는 가마가 집중 운영되고 있었던 점, 더욱이 유천리에서는 강진이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문양과 형태를 띤 것들이 일부 생산되는 점과 강진 지역보다 오히려 양질의 상감청자가 다량으로 제작되는 점등에 주목하였으며, '자기소'로 생산 활동을 했던 강진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당시 자기 생산의 다원화된 생산구조의 일면을 짐작케 해준다.²¹⁾

20) 주 10)의 p. 77, p. 79.

21) 李喜寬, 「高麗靑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강진청자자료박물관), pp. 61~80. 본 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진 요장의 성격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호림박물관의 이희관 학예실장님께 감사 드린다.

表 1. 옹운리 출토 청자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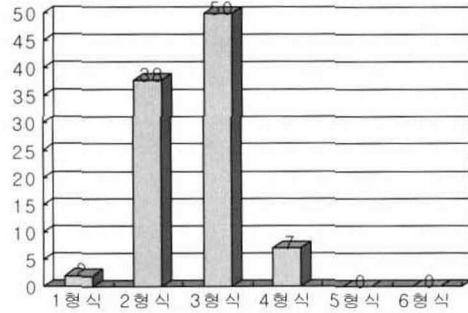


表 2. 사당리 출토 청자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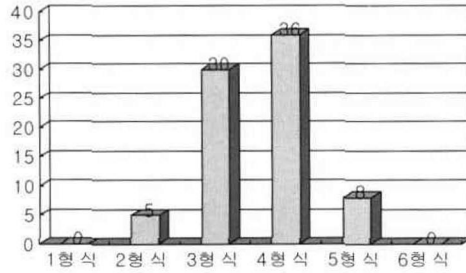


表 3. 계율리 출토 청자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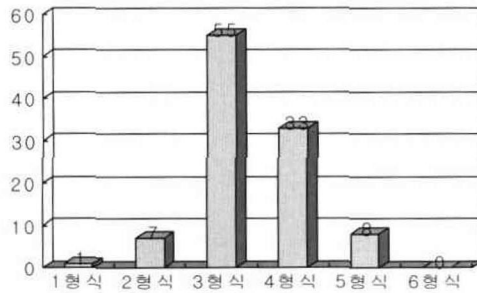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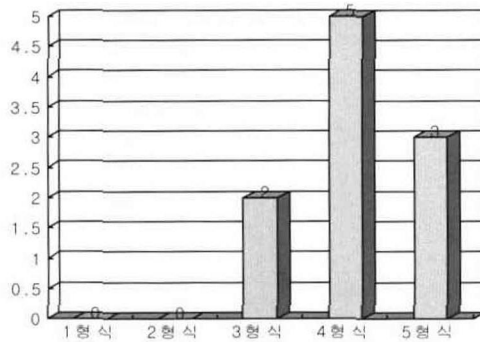


表 4. 수동리 출토 청자유형 분포



그런데 자기소에 편제되지 않았던 고려전기의 窯場들에서도 가마의 축조방법과 청자의 종류 및 형식에서 '康津類型'²²⁾이 기본을 이루고 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우선 강진 용운리 10호요지 최상층에서 출토된 청자류 가운데 대표 기종의 속성을 요약하여 살펴보고 다른 지역의 몇몇 가마터 출토품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강진유형 청자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진 내에서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대구면 용운리 10호 요지로 1980년대 초에 발굴이 이루어지고 1997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²³⁾ 용운리 10호 가마에서는 4기의 가마가 확인·발굴되었으며 그 가운데 10-1호로 명명한 가마의 유구와 주변 퇴적이 잘 드러났고, 발굴당시의 유물수습과 보고서 작성도 10-1호 가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고에서 '강진유형'으로 명명한 최상층(10-II층)에서 출토 청자류는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이루어진 강진지역 가마터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 삼흥리등 5개 지역의 188개소 가운데 130여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집되고 있어 73% 이상이 이들 용운리 10-II층 유형과 같은 유형의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이전 시기부터 이미 요업이 시작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이후 시기까지 요업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몇 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III, IV유형을 집중 생산하고 있다.²⁴⁾

분석의 대상은 용운리 10-II층 출토 <鉢> 2,654점, 완 973점, 접시 3,187점 등 총6,814점이다.鉢은 번조시 내화도반침을 사용한 것이 12%, 내화도섞인 모래빛음반침을 사용한 것이 70%, 규석반침을 사용한 것이 2% 정도이고 碗의 경우는 각각 34.4%, 54.4%, 0.3%이며, 접시도 29.3%, 63.5%, 0.7%로 이전시기에 비해 단연 내화도섞인 모래 빛음 반침을 사용한 예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²⁵⁾ 그런데 위의 종의 반침 외에 다른 번조 반침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疊燒의 경우도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반침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양이 있는 경우鉢은 34.3%, 완은 12.4%, 접시는 9.5%로 발 종류에 문양의 비율이

22) 이 용어는 현재까지 조사된 강진지역의 188개 가마터 가운데 가장 대중을 이루는 유형에 대해 필자가 붙인 것이다. 본고에서 기준으로 하는 용운리 10호II층의 출토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음각·양각의 蓮瓣文鉢, 鸚鵡文鉢, 筒形蓋, 팽이형 잔, 陽刻折腰접시등이 동반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경우 소위 한국식 해무리 굽완을 동반하는 층위 위에 퇴적되어 있으며 강진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新生가마에서 주로 나타난다.

23) 이하의 강진 용운리 관련 내용은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 圖版編(1997)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보고서 작성과정에 필자가 분류, 집필자로 참여하며 유물을 실전한 것임을 밝혀둔다.

24) 이러한 자료는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 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1992)에서 구분한 유형분류 기준과 용운리 발굴 품의 정리시 유형분류 기준이 대체로 비슷하여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만, 해강측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보면 II, III, IV유형이 시차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용운리 10호발굴품의 경우 III, IV유형은 동시에 흙어서 출토된 예들이 있어서 같은 시기의 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5)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本文編(1997), pp. 95~213.

表 5. 용운리 10호Ⅱ층 출토 청자
번조받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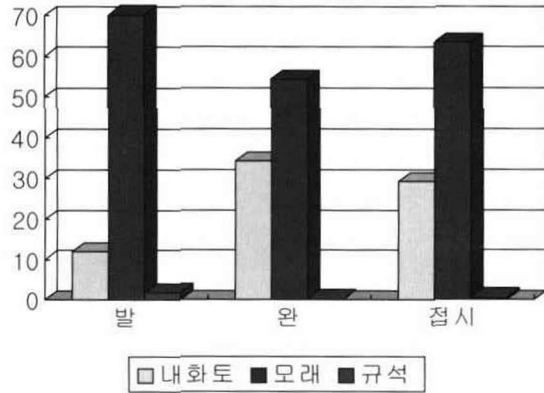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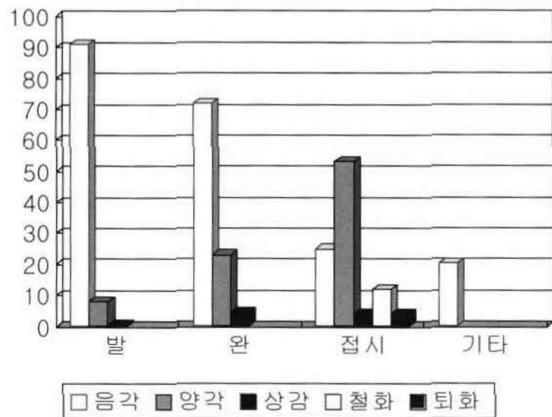


表 6. 용운리 10호Ⅱ층 출토 청자
장식기법 분포



높았다. 문양기법으로는 주로 음각 양각, 상감 등이 사용되었는데 발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각각 91%, 8%, 0.5%이고 완의 경우 72%, 23%, 4.1%이며, 접시 가운데는 음각, 양각, 상감²⁶⁾의 비율이 각각 25%, 53%, 4%이며 퇴화 4%, 철화 12%로 나타났다.²⁷⁾ 그러나 대부분이 무문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접시나 병 등 다른 기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화, 퇴화 기법이 대접이나 접시에 거의 사용된 예가 없어서 주목된다.

26) 상감청자의 존재를 놓고 일반청자와 시기를 다르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나 동일 층위에서 동시대에 이루어진 별개의 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천리의 경우에도 아직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원광대 발굴 품이나 1966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했던 발굴 품을 보면 비색의 음각문 청자류, 양각, 등이 양질의 상감청자류와 거의 시차 없이 동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 그동안 상감류와 음, 양각류를 별도의 시기로 구분해 오던 시각은 재고를 요한다.

27) 주 23) 참조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몇 가지 속성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식의 베이지색 내화토 반침 대신 모래 섞인 빛음 반침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규석반침도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문양 가운데는 전통적인 음각의 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발의 내면에 鸚鵡文이 등장하고, 완 내면에 水波文, 발의 외면에 끝이 날카로운 蓮瓣文 장식을 부조나 음각기법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圖 1, 2, 3, 4, 5). 한편, 이 시기 청자가운데 鉢(대접), 碗, 접시의 내면을 문양 틀로 눌러 찍는 壓型양각 기법은 이전시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장식방법이다(圖 6). 문양이 있는 접시에서는 이와 같은 양각방법이 53%에 달해 주목되는데 일정 규격의 壓型(陶范)을 사용하여 크기와 문양이 균일하고 대부분 내면 전체나, 내측면 등에 공통적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花文이 들어가게 되어 크기에 관계없이 거의 疊燒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거친 모래 빛음 반침 유형 가운데서도 상품으로 취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한 발이나 접시의 형태상 공통점은 내면 보다 구연이 넓고 벌어져 문양 틀을 사용하기 편리하다는데 있다. 이들과 함께 일부 극히 소량으로 鐵畫와 堆花, 象嵌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철화는 일상기명인 발, 완, 접시류 보다는 瓶, 壺, 長鼓 등 특수 기형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법으로 강진의 경우도 일부에서 사용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강진에서도 최고급품을 생산하였던 사당리 일부 가마와 해무리굽 청자를 동반하는 10여기의 가마를 제외하면 거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외에도 통형잔, 팽이형잔 등이 새롭게 보이며 고식의 전 접시와 굽높은 향완, 둥근 몸체의 유병, 반구형장경병 등은 거의 사라지고 원통형 갑발의 사용도 현저히 줄어든다.

용운리 10호요지에서 보여주는 번조방법과 동반기종의 양상은 앞서 강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 본 각 유형과 거의 일치하며, 대중을 이루는 발, 완, 접시류의 형식과 조형 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운리 10-II층위에서 발견되는 청자류를 제작하고 있던 시기가 강진군 대구면 일대의 요업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안의 유천리 제27·28호 요지 발굴조사에서도 용운리 10호와 비슷한 기종과 장식의 청자류가 출토되어 강진과 동일한 유형을 생산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외면에 음각 연판문과 내면에 음각 앵무문이 시문 되는 鉢들과 내측면에 압출양각 花文이 시문되는 접시류, 통형잔, 팽이형 잔, 몸체가 낮은 유병 등과 함께 象嵌과 퇴화, 철화기법이 사용되어 기타 지역에서 음각문이나 양각문 위주로 생산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圖 7, 8, 9). 이는 부안 유천리가 자기소에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강진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가마로서 강진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⁸⁾ 이에 관해 호암미술관 호암미술관

28) 원광대학교박물관, 「부안유천리청자요지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19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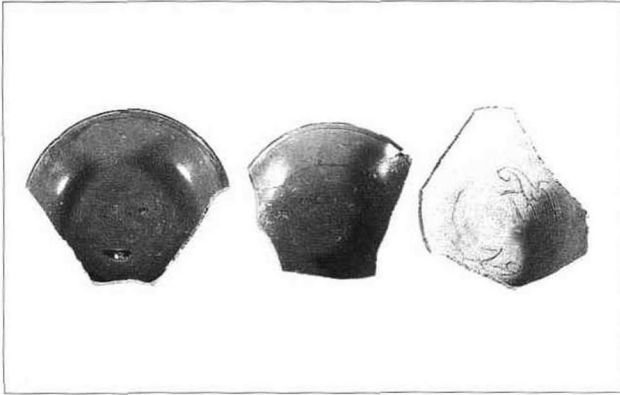


圖 1.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앵무문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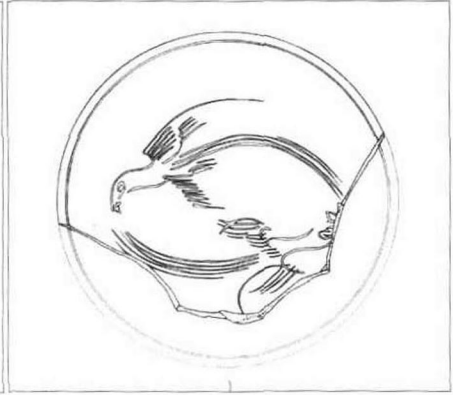


圖 2.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앵무문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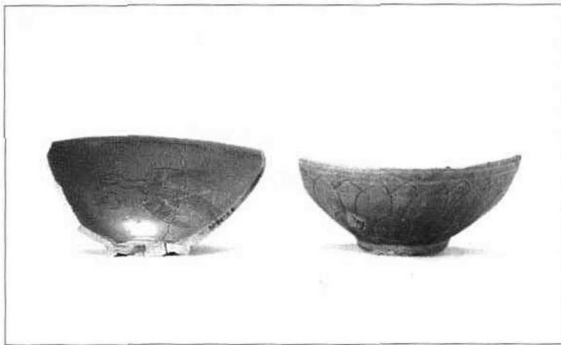


圖 3.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앵무문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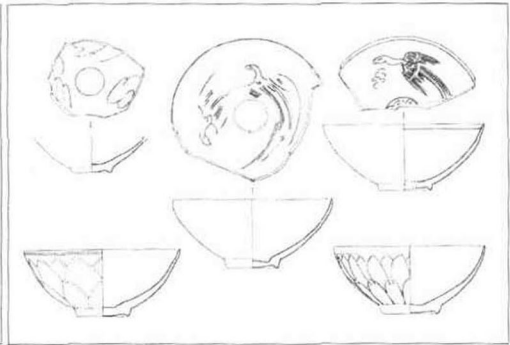


圖 4.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연판문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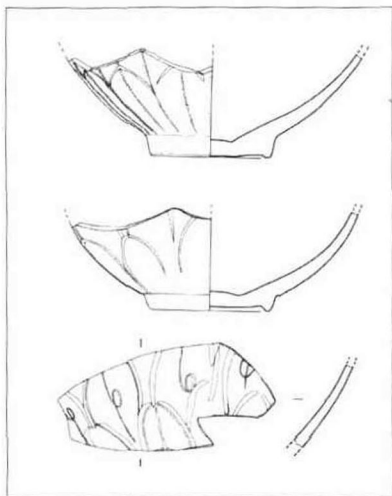


圖 5.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연판문 대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6. 강진 용운리10호 II층 출토 압출양각용 陶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7. 부안 유천리 27, 28호요 출토
청자류, 1998년, 원광대학교 발굴



圖 8. 부안 유천리 27, 28호요 출토
청자류, 1998년, 원광대학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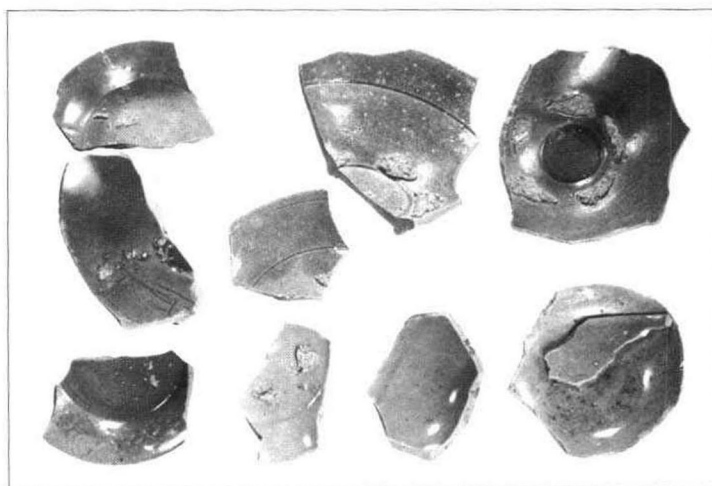


圖 9. 부안 유천리 수습도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辛丑'銘 상감벼루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유천리 窯場이 무인정권기에 黃河寺 중심으로 번성한 私窯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²⁹⁾ 그러나 일부 가마에서 강진보다 발달된 상감청자 생산이 가능했던 점에서 私窯의 가능성이 있지만, 부안 유천리가 강진보다 늦은 시기에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점이나 일반적인 기본형에서 강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을 지니고 있는 점,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역 생산품이 소위 '강진유형'에 해당되고 있는 점³⁰⁾ 등으로 보아 강진을 중심으로 하는 공납질서 속에서 그 일부를 부안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강진유형'은 강진군 외에도 전라남도 지역의 영광군 백암리와 충남 공주군 사곡면 新永里 (圖 10) 에서도 확인되는데 태토나 변조받침등은 강진보다 거칠고 굽 주변을 시유하지 않는 등 질이 떨어지지만 압출양각 접시류의 크기나 문양, 축선의 높이, 그 위에 다른 것을 포개 굽지 않는 점 등은 일치하는 것이다.³¹⁾ 이러한 청자류는 대덕군 진잠면 성북리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충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리가마터에서도 연판문 대접(圖 11), 압형 양각접시(圖 12) 등을 기본으로 하는 청자류가 제작되었다.³²⁾ 근래에 발굴된 三陟의 天恩寺 이승휴 유허지 인근에서는 청자가마터 관련유구와 함께 청자, 요도구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시유하지 않은 굽에 외면을 연판문으로 장식한 대접과 압출양각 접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圖 13, 14). 그런데 삼척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천은사 인근지역 출토품 가운데는 형식은 같으나 백자로 보이는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어 주목된다.³³⁾ 그러나 강진 이외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동반기종이 강진에 비해 단순하며 태토의 질과 유색 등이 조잡하고 변조시에도 규석을 받친 예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보고서가 출간되어 전모를 알 수 있게 된 대전시 舊完洞 가마터 역시 위의 요지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용운리 10호 II층과 마찬가지로 앵무문, 연판문 대접과 접시류, 통형잔, 압출양각기법 접시류 등이 동반된다(圖 15, 16, 17, 18). 그런데 구완동 가마터에 인접한 대전 寶文山城과 대전시 大德區 法洞 건물유적에서 구완동 가마터 생산품으로 보이는 청자가 발견되어 그 소비처의 성격이 대전권 일대 지방세력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⁴⁾

29) 이회관, 본 고, 주9)참조.

30)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扶安郡, 『扶安柳川·鎭西里靑磁窯址調查報告書』(1994)를 보면 유천리의 1~7지역내 155개 사적지정지역내 출토 청자류 대부분이 '강진유형'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가마터분포표: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가마터분포도 참조. 이 외에 사진 자료는 小學館, 『世界陶磁全集』, 高麗編, 참조. 신영리 가마터 출토품은 필자가 실견한 바 있다.

32) 충북대학교 박물관, 『음성 동부 C.C건설예정지역 청자요지 시굴조사 보고서』(1999), 발굴도면 사진자료를 협조해 주신 충북대학교박물관에 감사 드린다.

33) 關東大學校博物館·三陟市, 『三陟 天恩寺 李承休遺墟址 發掘調查報告書』(1999), 사진자료를 협조해 주신 관동대학교 박물관과 강릉시립박물관의 홍순욱선생님,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삼척시립박물관에 감사 드린다.

34) 주 4) 참조. 구완동 출토 청자자료의 사진을 협조해 주신 해강도자미술관의 이종민·장기훈 두 분



圖 10. 공주 신영리 요자 수집 청자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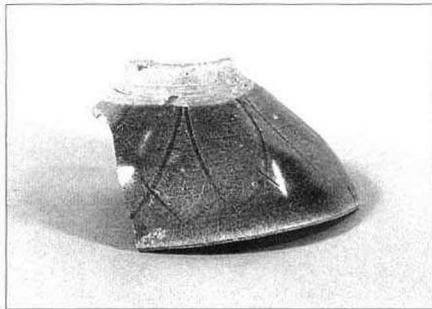


圖 11. 음성 생리요자 출토 청자연관문鉢, 1999년, 충북대학교박물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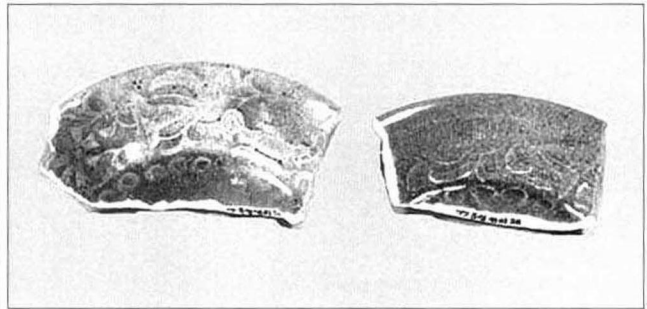


圖 12. 음성 생리요자 출토 청자연관문鉢, 1999년, 충북대학교박물관 발굴



圖 13. 삼척 천은사 요지 출토 청자양각 花文접시, 1999년, 관동대학교박물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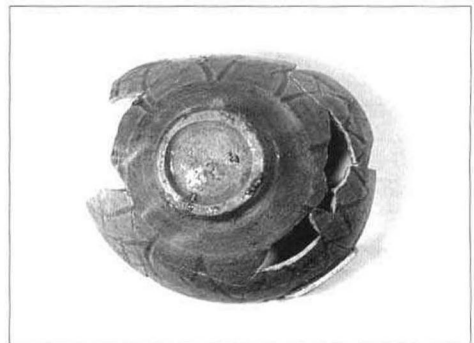


圖 14. 삼척 천은사 요지 출토 청자양각 연관문 접시, 1999년, 관동대학교박물관 발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종민 선생님은 역사학대회에서 토론을 맡아주셨고, 구완동 청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圖 15. 대전 구원동 요지 출토 청자음각앵무문 접시, 1995년 해강도자미술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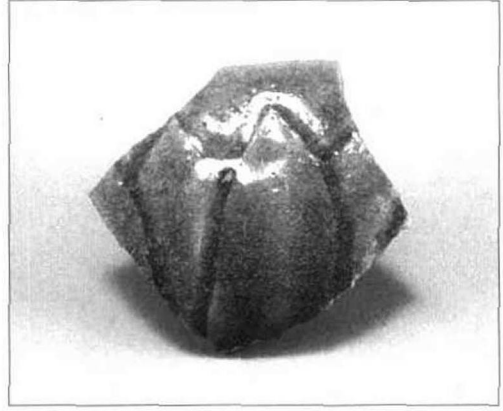


圖 16. 대전 구원동 요지 출토 청자음각연판문 대접, 1995년 해강도자미술관 발굴



圖 17. 대전 구원동 요지 출토 청자뚜껑, 1995년 해강도자미술관 발굴



圖 18. 대전 구원동 요지 출토 청자압출양각 花文 접시, 1995년 해강도자미술관 발굴

IV. 출토 양상으로 본 강진유형 청자의 확산

한편, 이 시기 자기소와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강진유형 청자의 수요와 제작시기는 분묘, 사찰, 주거지 등의 출토 예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송사(宋史)》고려전의 1015년경 기록을 보면 고려 민가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가 '구리'35)라고 하여 11세기 전반만 해도 아직 상류계층을 제외하면 청자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1123-1124년 사이 북송 휘종의 서경(徐兢)에

35) 《宋史》, 高麗傳, 八年.

의해 저술된 《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보면 외빈을 접대하기 위해 순천관(順川館)에서 사용하였던 관물(官物) 청자의 기종과 형태, 질 등은 당시로서 최고의 비색청자였다.³⁶⁾

청자의 출토예를 보면 신분계층이나 소비처의 성격에 따른 질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지역에서 소비하는 동일지역 생산품일 경우 실생활 용품과 부장품간에 구별은 없다. 이러한 사실은 가마터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같은 지역내의 가마의 경우 고급용품을 제작하던 가마와 조질품을 생산하던 가마가 공존하면서 수요에 따른 차별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³⁷⁾ 고려 무덤에서 부장용품으로서 청자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대체로 12세기 이후로서 일반적으로 접시나 대접, 잔, 병 등의 청자류와 도기 및 금속제품(거울, 집게, 동곳 등)이 동반된다. 청자의 기종이나 형태, 문양 등을 살펴보면 분묘나 생활유적지의 청자들이 양식적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에 위치한 인종(仁宗, 1122-1146) 장릉(長陵) 출토 청자 과형병, 방형대, 무분합, 국화형 합³⁸⁾ 등은 강진 사당리(沙堂里) 요지에서 다수 출토된 바 있으며³⁹⁾ 이들과 같은 가마 퇴적에서 청자기와 편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기록상 12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養怡亭’ 관련기사와 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⁰⁾

고려시대에는 석실묘, 석곽묘, 석관묘 등이 王陵, 귀족과 호족, 佛家の 화장 등에 축조되었고, 민간의 호족과 부유층 농민의 분묘로는 토광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계층과 성별에 차이가 있겠으나 크게 금속, 도자, 직물류 등으로 구성된다.

12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되는 三陟 三和里에서는 동반유물 가운데는 전형적인 강진유형의 압출양각 청자완과 소형의 접시류가 포함되어 있어서⁴¹⁾ 삼척 천은사지 인근요지에서 수습된 파편들과 일맥상통한다(圖 19). 삼척지역에는 이외에도 몇 군데 청자가마가 알려져 있어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연기군 월산리, 11호 고분에서는 내저원각선이 있고 구연이 외반된 청자완이 출토된다.⁴²⁾ 충주 단월동 고분군 B-3호묘에서는 청자철화 油瓶이 출토되었는데 청동수저, 동곳만이 함께 출토되었다.⁴³⁾

36) 崔夢龍, 「高麗圖經에 보이는 器皿」, 『韓國文化』 6(서울대학교, 1985.12), pp. 63~73.

37) 拙稿,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용기의 원류를 찾아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pp. 176~185.

38) 小學館, 『세계도자전집』, 고려편.

39) 1964-65년, 73-74년에 발굴된 강진 사당리 출토품에 대한 기술은 필자의 실견에 의한 것임.

40) 《高麗史》世家18 毅宗 11年(1157) 4月, “...정(亭)의 남쪽에는 못을 파고 관란정(觀瀾亭)을 지었으며, 그 북쪽에는 양이정(養怡亭)을 지어 청자(靑瓷)로써 지붕을 이고...”

41) 鄭良謨, 「三陟郡北坪邑三和里出土高麗時代遺物一括」, 『考古美術』 129·130(1976), pp. 190~197.

42) 연기군·건국대학교박물관, 『燕岐郡 月山里 古墳群』(1998), p. 54.

43) 충주박물관, 「충주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1992); 建國大學校 博物館, 『忠州 丹月洞 古墳群』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에서도 총 23점의 유물 가운데 청자 대접, 청자접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 부장된 유물 가운데 皇宋通寶(1039-)가 있어 일러도 11세기 전반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한편, 여주읍 하거리 고분군 내 39호 토광묘에서도 양질의 청자 발이 접시, 철제가위, 동전, 수저 등이 함께 출토되었고,⁴⁵⁾ 45호 석곽묘에서는 구연이 말린 나지막한 바리가 청동제 합, 청동제 수저 등과 동반된다. 대전시 노은동 유적내 토광에서는 다수의 경질도기편과 소형의 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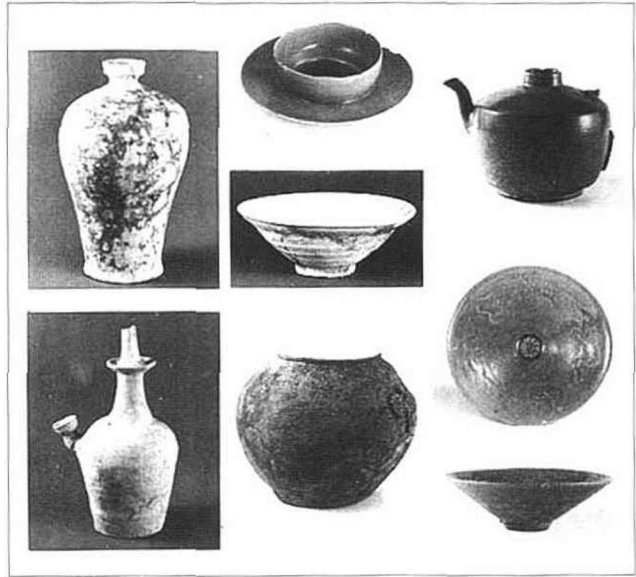


圖 19. 삼척 삼화리 고분 출토 청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기류가 일괄로 매장되며⁴⁶⁾ 충남 진산군 읍내리 석곽묘는 유구훼손으로 유물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동체에 거친 음각연판문 대접과 안굽형의 화형접시, 거친 태토의 청자 반구병이 함께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⁷⁾ 한편 丹陽 현곡리 고분군 12호 석곽분에서는 반구형 구연의 도기병과 병 뚜껑으로 사용된 청자 잔받침, 청자음각앵무문 대접이 동반되며, 30호석곽분에서는 청자상감 瓜形注子を 비롯한 운학문 대접등과 중국제 백자, 반구형 도기병(또는 청자, 시유)이 동반되었는데 상감주자는 용운리10-II층의 전형적인 소형 전접시 양식을 띠고 있다.⁴⁸⁾

청주 龍岩유적에서는 청자 연판문대접과 압출양각 접시류가 주류를 이루며⁴⁹⁾(圖 20, 21), 용인 佐恒里에서는 백자를 동반하며 이밖에도 8호 석곽묘에서는 청자와, 녹청자 매병, 도기반구병이, 9호 석곽묘에서는 동경과 도기병, 청자, 백자, 동경, 가위등이 함께, 1호 토광묘에서는 백자 장경백자 장경반구병, 청자대접이 함께 나왔다.⁵⁰⁾

(1995), pp. 76~77, 167.

44) 김성태,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要』(경기도 박물관, 1997), pp. 77~103.

45) 한국체육진흥회·경희대학교박물관, 『여주 하거리 방기미골 고분(발굴조사보고서)』(1999), pp. 167~172, p. 310.

46) 한국토지공사·충남대학교박물관, 『大田老隱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1998), p. 90.

47) 강인구, 「진산읍내리의 고려석곽묘와 출토유물」, 『고고미술』 146·147(1980), pp. 78~81.

48) 서울시립박물관, 「단양현곡리 고려분묘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회의자료」(1998).

4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청주용암유적』(1999).

50) 명지대학교박물관, 『龍仁佐恒里 高麗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1994, 12).



圖 20. 청주 용암유적 출토 청자자연판문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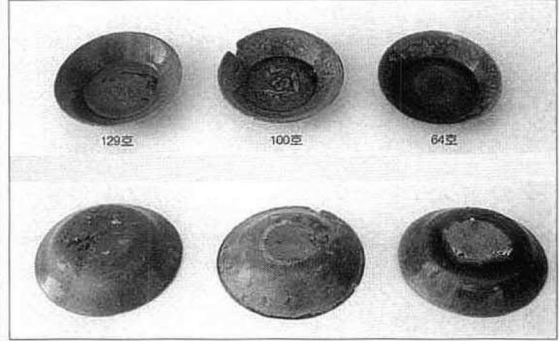


圖 21. 청주 용암유적 출토 청자압출양각 접시

한편 안동 정상동 토광묘에서도 46점의 동전과 함께 5점의 청자가 나왔는데 부장되었던 동전 가운데 大權通寶(1107-1110)가 있어 일러도 상한년이 12세기 전반 이후로 보인다. 그런데 청자는 거친 태토에 녹갈색으로 정병, 주자, 잔, 잔대, 호 등과 함께 셋트를 이루고 있으며 강진과 비교하자면 玉緣形의 壺, 고식의 盞臺 등에서 용운리 10-I 층위 출토 고식청자류와 유사하다(圖 22).⁵¹⁾

이처럼 고려시대 분묘에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청자, 도기 등이 유물로 함께 매장되며 완, 발 등 음식기용 소형기명으로 구분되어 생활유적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피장자의 신분 등에 따라 매장유물에 차이를 보이며, 또한 분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기종의 청자와 도기가 하나의 무덤에 중복 부장되는 예가 드물어, 대표적인 기종, 재질들이 선별되어 부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12세기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는 연판문 대 접류와 양각접시 등이 빈번하게 동반 출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圖 22. 안동 정상동 고분 출토 청자류 일괄, 안동대학교 박물관 소장, 12세기 전반 이후

생활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는 彌勒寺址를 들 수 있다.⁵²⁾ 미륵사지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부터 출토되고 있으며 비교적 층위구분이 뚜렷한데 청자는 고려시대 층위에서만 발견되었으며 10세기경의 해무리굽부터

51) 권두규, 「안동 정상동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유물」 안동문화연구회 월례발표회 발표요지(1998).

52)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도판편)』(1989) : 진라북도 익산지주문화유적 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1997).

상감, 철화, 퇴화 등의 완, 대접, 잔, 잔탁 등 다양한 기종을 이룬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11-12세기 청자이며, 문양사문 기법을 보면 음각의 비율보다 양각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양각류 접시들은 규석반침의 예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형의 낮은 접시나, 연판문 장식의 잔, 상감, 철화 등 동반관계가 가마터와 같다. 이는 미륵사지 출토 청자의 산지가 어디인가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강진 용운리 가마터 출토품의 제작 상황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미륵사지 출토 고려도자는 대상 개체수 총 11,076 점 장식기법별로 보면 무문 7,475점, 음각 1,016점, 양각 1,894점, 퇴화 189점, 상감 491점, 철화 11점으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양각류의 규석반침 변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내면에 양각문이 있는 경우 그 위에 다른 기물을 포개 굽지 않고 고급으로 변조하는 도요지의 양상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예는 보령의 聖住寺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체 도자기 출토 비율상 외면에 양각으로 연판문을 넣은鉢을 포함하는 청자류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³⁾ 최근까지 발굴이 이루어진 安城 奉業寺址는 10-12세기에 번성했던 사찰로 총 21개소의 건물지와 부속시설을 확인, 대부분이 고려시대 건물지로 밝혀졌는데 출토되는 도자류도 고려시대 청자가 대부분이며 翡色의 양질 청자류로 역시 양각접시, 연판문대접 등이 동반관계를 이루고 있다.(圖 23, 24, 25) 특히 1081년명 청동제 향완과 崇寧通寶(1102-1106)등이 함께 출토되어 이들 청자류의 제작 년대도 12세기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실견에 의하면 강진이나 부안지역에서 생산된 청자에 비해 태도가 밝고 유약도 옅은 색을 띠는 경향이 짙어 강진, 부안과는 다른 안성 인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규석반침과 상감기법을 동반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 된다.⁵⁴⁾ 같은 銅錢이 출토된 곳으로는 公州 金鶴洞 고분군이 있다. 특히 4, 5, 6, 7호묘에서 청자류와 銅鏡, 동전류가 함께 매장되었는데 7호묘에서 음각연판문 장식의 대접과 折腰접시, 철화문 병 등이 역시 崇寧通寶(1102-1106)와 함께 매장되었다.⁵⁵⁾ 이는 김산 관아지 출토 예에서도 일치하며 현종 5년(1014)에 창설되어 세종 6년(1424)까지 존속했던 경남 사천 본촌리 폐사지에서도 양질의 청자류(규석반침, 음각연판문 대접)를 동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⁵⁶⁾ 적어도 이들 유형이 빨라도 11세기 전반 이후에 유행하던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생활유적 가운데 최근 발굴이 이루어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유적이 주목된다(圖 26). 강진과 인접한 이 지역에서는 고려시대 산포지에서 12세기 전형적 유형인 무문, 음각,

53) 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1998), pp. 457~568.

54) 백종오,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97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要』(경기도박물관, 1997), pp. 77~103. 京畿道博物館, 『安城 奉業寺址 發掘調査 현장설명회자료』(1998).

55) 忠淸埋藏文化財研究院, 『公州金鶴洞古墳群』(2000).

56) 慶尙大學校博物館, 『泗川 本村里 廢寺址』(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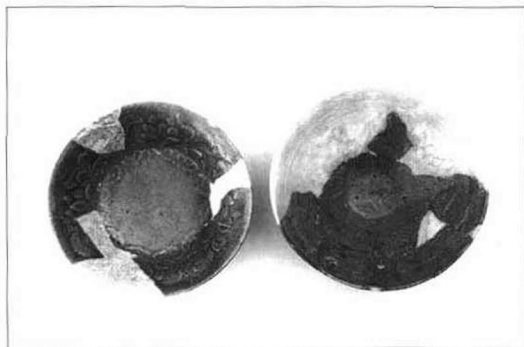


圖 23. 안성 봉업사지 출토 청자압출양각 접시,대접, 경기도박물관 소장, 12세기 전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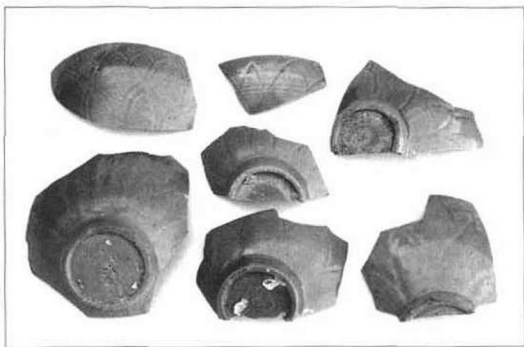


圖 24. 안성 봉업사지 출토 청자음각연판문 대접, 경기도박물관 소장, 12세기 전반 이후



圖 25. 안성 봉업사지 출토 청자음각연판문 접시, 경기도박물관 소장, 12세기 전반 이후



圖 26. 장흥 대리유적 출토 청자류, 2001, 목포대학교 박물관 발굴

양각기법의 청자류가 청자가운데 80%가량 수집되었고 강진의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등지에서 수습되는 청자와 동일하여 강진산 청자의 소비처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⁵⁷⁾

한편, 일본의 여러 유적에서도 출토되는 고려청자를 분석한 결과 福岡 지역의 鴻臚館유적에서는 1047년에 소실된 층위 윗쪽에서 해무리굽 등 초기 청자류가 발견되며 그 위에 압출양각 접시 등이 발견된다.⁵⁸⁾ 이밖에도 일본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를 분류해 보면 11세기 중엽 이후부터 무문의 청자류가 太宰府나 博多유적 등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12세기 전반 이후 九州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寺院, 集落, 城館, 都市 할 것 없이 대부분 발, 완, 접시 등 일상용기가 대중을 이루고 매병과 병류가 다음을 차지하여 생산지에서의 경향과 일치한다.⁵⁹⁾

57) 목포대학교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개요』 (2001).

58)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分類試案」, 『博多研究會誌』 제8호(2000.9), pp. 41~75.

V. 맺음말

청자발생 초기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요업은 일정시기부터 강진과 부안을 중심으로 양상이 바뀌고 서남해안 가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博築窯에서 소규모 土築窯로 바뀌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생산품인 청자도 해무리굽 완이 각각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던 것에서부터 강진지역에서와 같이 多種의 일상용기 생산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어서 청자의 사용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가마터와 여러 유적을 통해 고려전기 청자의 생산과 소비양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려 전체에서 가장 일정한 양식이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所로 지정되었던 강진 대구면의 경우 이른바 Ⅲ형식으로 분류되는 유형들(음각연판문, 앵무문대접, 접시, 압출양각 접시, 통형잔, 팽이형잔, 거친모래빛음 받침, 규석받침포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외 부안유천리 일대도 같은 유형을 생산하는 요장이 대규모 요업이 활성화되고 가장 많음은 물론 이외 각 군현에서도 도자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강진유형'으로 명명한 이들 청자류는 質과 기종의 차이는 보이지만 거의 일정한 동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또한 일본의 여러 유적에서도 이시기 청자가 가장 많이 발견되어 약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생산지와 소비지가 조형적·시간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청자 발생기 窯場이 주로 서남해안에 밀집되고, 국내 유적에서의 출토 예가 많지 않은 점, 그리고 그 가마들의 생산품이 이후 강진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의 기종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1세기말~12세기전반을 정점으로 하는 시기의 청자생산 구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예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한시대의 대다수가 같은 목적으로 향유함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의 자기소는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전기의 일반적인 지방지배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 수취와 행정처리는 지방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관청에서 직접 사용된 관리가 파견되어 監造했던 조선시대 분원과는 그 성격이 달랐던 것이고 관요백자의 외부 유출에 제제를 가했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지방수요를 위한 청자 생산에 있어서도 강진유형의 파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대의 군현제 개혁(성종14, 995)과 현종9년(1017)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본격적인 지방제도 재편은 수공업 소와 기타 부곡 등에서의 청자생산 체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1124년 장흥부가 승격되고 영암에 속해 있던 耽津縣이 장흥으로 移屬된 사실과

59) 降失哲男, 「遺蹟出土高麗靑磁」, 『南島考古』第19號(沖繩考古學會, 2000), pp. 63~84.

1172년 강진 지역에 처음으로 監務가 파견되었던 점 등은 우선 강진청자 제작의 활성화 현상 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고려 전체에서 볼 때 강진은 물론 국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일정한 공반관계 청자를 생산, 사용하였던 시기는 제도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가능케하는 생산 및 공급의 체계가 갖추어진 시기였을 것으로 보며, 각지 유물의 동반 출토관계와 연대 추정을 통해 12세기가 그 중심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배경은 자기소외에도 部曲이나 鄕 등지에서의 자기생산을 자극했을 것이고 자기소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던 청자는 귀족이나 세력가, 사찰 등과 같은 私적인 수요를 감당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때 자연스럽게 그 모델은 강진 大口所 생산의 청자였을 것이며 따라서 '강진유형'의 공유 범위는 광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강진과 일치하는 일정한 동반 양식의 생산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Celadon of the 11-12th Centuries of Koryŏ and the Popularization of the “Kangjin Style”

Chang Nam-won

The kiln industry that developed in the area around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iest period of celadon in Korea became concentrated around Kangjin and Puan from a certain period. The kilns that had been formerly built in brick were replaced by those in mud by this period. The bowls with a pi-shaped foot rings, which were once quite popular as to comprise the half of the entire products, became only a small part in a wide variety of pottery types. These changes apparently reveal a transformation in the use of celadon.

Among the early celadon kilns, however, except for the one at Sŏ-ri, very few produced celadon ware that could be related to that of Kangjin in shape.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oduction structure and the products were transformed as the celadon production system improved. In other words, unlike the early celadon kilns, which used brick structure, the new mud-built kilns around the Kangjin kilns created new types in shape and mass-produced such wares throughout the country. Moreover, most Koryŏ celadons excavated in Japan were discovered in the strata of the same period and give parallels for the circumstances in Korea.

The reform of provincial structures during the reign of King Sŏngjong (995) and of King Hyŏnjong (1017), which led to the serious reorganization of the provincial system, must have affected the celadon production system. The setting up of Changhŭng-bu in 1124, the transference of a prefecture in Yŏngam to Changhŭng, and the dispatch of officials to the Kangjin area in 1172 for the first time, all seem to relate to the active production of celadon ware.

During this period, the most popular typical style was not only produced around

the Kangjin area, but also profusely produced in the Puan area. This situation probably stimulated ceramic production in other local areas and the wares produced there would have privately accommodated to the taste of aristocrats, powerful officials and Buddhist monasteries. The model for the production must have been the celadon produced in the Ceramic-Manufacturing Department (Chagiso), which was then in Kangjin. The Kangjin style thus became widely spread in the homogeneous style and production method.